

서울시, 장안동 일대 ‘그린 커뮤니티 주거단지’ 만든다

134-15번지 일대 신통기획 확정
공원 연결 ‘순환형 그린웨이’ 조성
최고 36층 내외 스카이라인 계획

그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가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오른다. 서울시가 최근 ‘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해당 지역은 자연과 주민의 일상이 어우러지는 36층 내외, 총 1750세대 규모의 대단지 주거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장안동은 배봉산(서측), 중랑천과 용마산(동측), 면목선 개통 예정지(북측) 등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청량리·전농답십리·이문회경 생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정체돼 있었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공원과 공원을 잇고, 사람과 일상을 연결하는 ‘그린 커



장안동 일대 경관계획안

/서울시

뮤니티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순환형 녹지보행체계 구축 ▲배후산과 주거지를 연계한 열린 경관계획 ▲지역과 소통하는 가로특화계획 등 세 가지 공간계획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활용도가 낮은 인근 공원들을 연결해 ‘순환형 그린웨이(녹지 가로)’를 조성하고, 한천로에서 중랑천까지 이어지는 동-서 방향 생활 가로를 도

입해, 단지 어디서든 공원 접근이 가능한 유기적인 보행 녹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경관계획에서 녹도 조성 구간으로 지정된 대상지 서측 한천로는 공원·보도·단지 내 보행공간을 통합한 폭 10m 이상의 녹지 친화형 보행축으로 정비된다. 이를 통해 배봉산에서 북한산까지 연결되는 광역 녹지축

확산도 도모한다.

용도지역은 기존 2종 7층·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상향해 최고 36층 내외의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답십리공원장이소공원용마산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확보한다. 이와 동시에 답십리로와 한천로36길 등 주요 가로변은 중저층 위주로 구성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열린 도시경관도 창출

한다.

또한 서울시는 장안동의 입지와 잠재력을 살려 가로별 특화계획도 마련했다. 면목선 104정류장(예정)과 연결되는 역세권 접근 가로, 북측 중랑천 방향 보행로, 남측 학원 거리 등 기존 가로의 특성을 살려 상업시설과 주민 편의공간을 배치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장안동 134-15번지 일대의 신속통합기획 확정은 장안동 발전의 신호탄”이라며 “앞으로의 절차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김경일 파주시장 “2026시즌 ‘K리그2’ 진출”

김 시장 “지금이야말로 승격 적기”

파주시가 오는 2026시즌을 목표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K리그2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며 파주시민축구단의 프로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사진)은 최근 제 24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지금이야말로 K리그2 승격의 적기”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시장은 승격 추진의 당위성을 세 가지 근거로 설명했다.

첫째, 최근 3년간 관중 수가 60% 이상 증가했고 가족·청소년층 관람객도 크게 늘어나며 팬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 둘째, 2026년 FIFA 월드컵 개최로 축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극대화되는 시기를 활용하면, K리그2 진입과 동시에 후원 유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등 여러 효과를 동



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 셋째, 파주 NFC(축구 국가대표 훈련원) 사용협약 종료 시점을 활용해 훈련장 및 유소년 아카데미 운영 등 다각적인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시민 일부의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김 시장은 “현재 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 스폰서십, 입장권, 중계권 수익, NFC 활용수익 등 수익 다각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5년간 39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파주시민축구단은 K리그3 소속으로, 2012년 창단 이후 2020년 K4리그 우승을 통해 K3리그로 승격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교육부, 중·고교 수행평가 운영방식 개선

수업시간 내 평가 원칙 적용
학습 부담 줄이고 실효성 제고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모든 수행평가를 수업시간 내에 실시하도록 개선에 나선다. 외부 개입이나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평가는 제한할 방침이다. 최근 과도한 수행평가에 대한 현장 불만에 대응한 조치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수행평가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수행평가는 암기 중심의 지필평가한계를 보완하고, 학생의 고차 사고력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행평가가 과도하게 시행되거나 특정 시기에 몰려

진행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교육부는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방향의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수업시간 내 평가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각 학교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수행평가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학습 부담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기 시작 전 모든 학교의 평가 계획을 사전 점검해, 외부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과제형 수행평가’나 과도한 암기와 준비가 요구되는 평가가 시행되지 않도록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7-8월 중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관리자와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평가의 도입 취지와 운영 기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현장 연수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운영상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지침을 손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평가의 공정성과 교육적 효과를 높이면서도 학생들의 과도한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수행평가는 단순한 시험을 넘어서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는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학교가 수업과 평가의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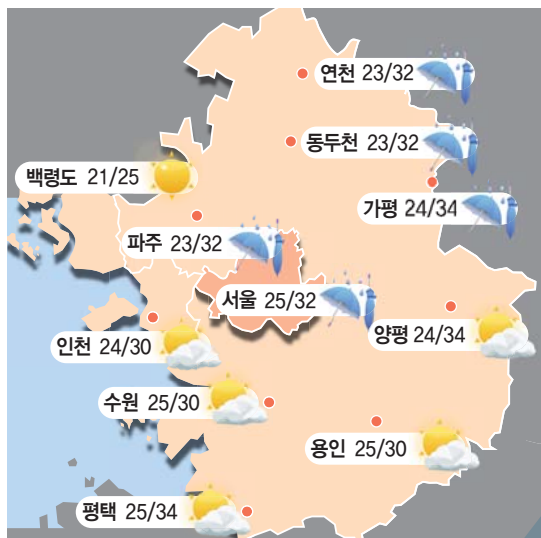
해돋이 / 05:15 | 해질 / 19:57

7월
3일 (木)
음력 : 6월 9일

수도권 날씨

25 ~ 32℃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시, ‘골목형 상점가’ 확대… “2029년까지 600개소 지정”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서울시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99개소인 골목형 상점가를 올해 100개소 신규 지정하고, 2029년까지 총 600개소를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신규 지정과 함께 각 자치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

도록 지정 기준 완화 표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에도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지원도 나선다.

올해 하반기에는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우수 상점가 공모를 진행해 공동 마케팅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연계 할인 금액 보전 ▲홍보 콘텐츠 제작 ▲

지역 상권 특화 마케팅 ▲경영 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박원근 서울시 상권활성화과장은 “이번 정책은 그동안 혜택을 소외됐던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도 생활비 절감이라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美 FBI, 취업사기·가상화폐 탈취 北일당 수배…보상금 68억원
▲美 대형은행, 금융위기 후 첫 규제 완화…배당·자사주 매입 확대

▲ICC에 지난주 사이버공격 발생…나토 정상회의장 인근
▲“디자인 모방 그만”…롤루레몬, 코스트코 복제품에 법적 대응



▲日, 탄소 배출 구매 한도 10%로 제한…탈탄소 실효성 강화
▲日자동차 업계, 트럼프 관세에 ‘가격 인상’…4개사 잇단 조정

/사진 뉴스